

TV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showing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Table with 4 columns: EBS1, EBS2, EBS3, EBS4. Rows showing program schedules for EBS channels.

Table with 4 column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EBS플러스3, EBS플러스4. Rows showing program schedules for EBS Plus channels.

Table with 4 column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丑, 寅, 卯, 辰, 巳. Rows showing horoscope predictions for various zodiac signs.

“배우들 색깔 잘 드러난, 배우를 위한 영화”

영화 ‘베테랑’ 류승완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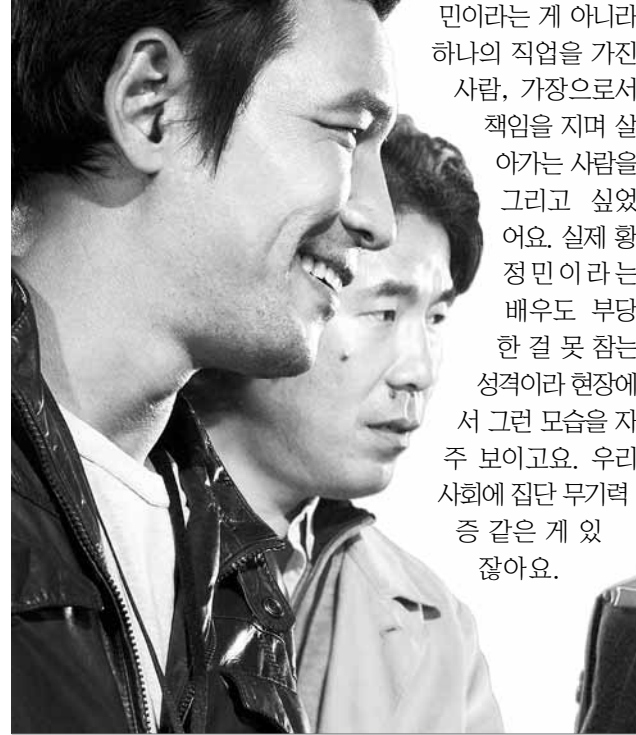
5일 개봉하는 ‘베테랑’은 ‘액션키드’ 류승완 감독(사진)의 연출도, ‘천만배우’ 황정민을 비롯한 배우들의 연기도 “물이 올랐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영화다. 비정한 사회 현실을 촌충한 스타일로 풀어낸 ‘부당거래’ (2010), 유럽 무대에서 남북한 정보요원들이 펼치는 액션 블록버스터 ‘베를린’ (2013) 등 전작들보다 어깨에 힘을 뺐으나 박진감은 더욱 넘친다.



그런 게 싫더라고요. 나 자신부터 내가 응원하는 대상이 승리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관객이 그런 쾌감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영화의 대결구도가 뚜렷하고 들려주는 메시지도 분명하다. 류 감독은 성장기에 액션 영화를 끼고 자란 액션키드이자 영화광이다. 그동안 액션물에 이리저리 변주를 시도했던 류 감독은 ‘베테랑’에서 자신의 ‘전공’과 취향을 망설임 없이 밀어붙이는 자신감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그는 이내 잘 빠진 액션 장면들의 공을 정두홍 무술감독과 서울엑션스쿨 멤버들에게 돌렸다. 이번 영화 촬영 중에는 오토바이와 차량 충돌 때 사고가 나 액션배우가 크게 다친 일도 있었다. “영화가 워낙 이렇게 사람이 다쳐야 하나 생각도 들었어요. 그럴수록 이 친구가 자랑할 만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싶었죠. 저는 컴퓨터그래픽(CG) 티가 나는 걸 못 견뎠어요. 아무리 화려한 CG도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건 못 따라가요. 진짜 사람이 하는 걸 보는 쾌감이 있거든요. 아직은 관객에게 그런 게 통한다고 생각해요.”

“베테랑”은 행동파 형사 서도철(황정민)이 안하무인인 재벌 3세 조태오(유아인)의 범죄행각을 추적하는 이야기다. 일을 조용히 넘기려는 압력이 여기저기서 들어올수록 서도철은 끈질기게 달려든다. 류 감독은 서도철이라는 인물을 분명히 ‘서민영웅’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베테랑” 들어가기 전부터 시나리오 개발을 하고 있던 작품이에요. 사진 한 장을 봤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극적인 사연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해야 하는데 자주 배우들은 ‘베테랑 2’ 하자고 하네요. 이거 참. 성격이라 현장에 서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이고요. 우리 사회에 집단 무기력증 같은 게 있잖아요.”

SG워너비, 4년만에 완전체로 컴백

오늘 새 앨범 ‘더 보이즈’ 발매

보컬 그룹 SG워너비(김용준, 이석훈, 김진호)가 이달 새 앨범을 내고 4년 만에 컴백한다. 소속사 CJ E&M은 SG워너비가 작곡가 조영수와 손잡고 오는 19일 새 앨범 ‘더 보이즈’(THE VOICE)를 발매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가장 SG워너비다운 음악을 선보이고자 ‘내 사람’과 ‘라라라’ 등의 대표곡을 작곡한 조영수와 다시 손잡았다. 조영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멤버들도 만족할 앨범을 완성시켰다”고 작업 소감을 밝혔다. 이날 SG워너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 김용준은 “4년간의 개인 활동 시기 동안 멤버들은 우정을 지키고 서로 응원했다. 제게 있어 SG워너비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었다. 리더로서 SG워너비 완전체로 컴백하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앨범 발매에 이어 10월 9~10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을 시작으로 24일 대구, 31일 부산 등지를 돌며 전국 투어를 개최한다. SG워너비는 2004년 ‘타임리스’(Timeless)로 데뷔해 ‘살다



가’, ‘라라라’, ‘죄와 벌’, ‘내 사람’ 등의 히트곡을 내며 2005~2007년 가요계 미디움 팀포 발라드 장르를 크게 유행시킨 그룹이다. 2011년 7집의 파트2 앨범과 같은 해 싱글 ‘사랑할’을 낸 뒤 멤버들의 소속사가 달라졌고 김용준과 이석훈이 군 복무를, 김진호가 솔로 앨범을 내며 팀 활동이 중단됐다. 두 멤버가 군 복무를 마친 후 지난 1월 CJ E&M과 전속 계약을 맺고 새 앨범 준비를 해왔다.

노현희, 세미 트로트 가수로 데뷔

앨범 ‘미대 나온 여자’ ... 역경과 치유 담아

텔런트 노현희(사진)가 앨범 ‘미대 나온 여자’를 발표하고 세미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다. 노현희는 이날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앨범을 공개했다. 앨범 ‘미대 나온 여자’에는 타이틀곡인 ‘미대 나온 여자’와 ‘어려요’ 등 두 곡이 수록됐다. 노현희는 아픔과 치유의 과정을 통해 역경을 딛고 일어난 과정을 그만의 감성으로 노래에 담아냈다고 소속사 측은 전했다. 타이틀곡 ‘미대 나온 여자’는 학벌과 외모 중심의 사회에서 자신을 미대 출신으로 포장하는 위트 있는 가사가 인상적인 곡



이다. SG워너비, 씨아, 에일리 등과 호흡을 맞춘 한승훈과 배유미 작곡에 참여했다. ‘아름다운 구속’, ‘별써 일 년’ 등으로 유명한 작사가 한경애가 가사를 맡았다. 노현희는 그동안 뮤지컬 무대에서도 활동했다. 그는 지난 1일 방영된 MBC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해 대중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마음고생 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다. /연합뉴스